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자연보호 광양시협의회 해외 캠페인

한국인 봄비는 태국 관광지 찾아 자연보호 이색 캠페인 호응 “당신 나라 국민들 대단하다” “광양지회가 어느 나라냐?” 문의

자연보호 광양시협의회(회장 이용재)가 이번에는 해외 나들이에 나섰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광양지회 회원 25명은 태국 방콕과 파타야 관광지를 찾아 이색 캠페인을 벌였다.

어느 관광지든 가는 곳 마다 한국인이 봄비 미리 준비해간 플래카드를 펼치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할 때 마다 국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호응도가 높아 두 배의 홍보 효과가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서로의 소중함과 반가움을 몰랐던 사람들도 낯선 해외에서의 만남은 감동과 기쁨이 더해졌다.

이로 인해 한 한국인 관광객은 ‘쉽게 버려던 쓰레기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파타야 관광지에서는 봉사단



자연보호 광양시협의회가 태국 민속촌인 ‘농복 빌리지’에서 캠페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관광객 이 전화를 걸어와 “자연보호 광양지

회가 어느 나라냐”며 “당신들 나라 국민들은 대단하다.”고 말하고 “외국에까지 와서 국제적인 행사에 놀랐다.”며 “자기네들도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말을 남겨 참석한 회원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자부심과 힘을 북돋아 주었다.

광양지회는 해변의 휴양지인 파타야와 ‘황금절벽 사원’, 1일 평균 관광객이 1만여 명이 찾는다. ‘농복 빌리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개인 소유자인 ‘농복 빌리지’는 자연녹지로 202만여 평에 열대식물 등 수 만점의 분재와 조각으로 꾸며져 태국정부가 협력단체가 되어 관광객에서 홍보를 지원해주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 역시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 존경받고 있다.

한편 광양지회는 지난 15일 진월면 선소마을 경로당을 찾아 자연보호 주민교육과 홍보를 마치고 10월에 두 번째 행사였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문화재단 설립 탄력 받다

시, 관련 조례 개정안 수용 결정

순천시 아시아생태문화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재단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지난 5년여의 과정이 시와 시의회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화제, 예술제,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재단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아시아생태문화 중심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주도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문화재단 등 문화단체를 통한 정부 사업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

국적으로 79개소의 문화재단이 설립 또는 추진되는 등 문화재단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문화재단 설립은 지난해 5월 31일 관련 조례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되었으나, 4개월 뒤 개정안이 발의되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문화재단 개정안을 수용하고 설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했던 많은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은 앞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선진 문화재단이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근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시민, 문화예술인,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 문화재단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소송 추진

나주시가 지난해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산포면 신도산 단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6일 나주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하자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통한 완벽한 하자보수와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한라오엠에스)와 하자보수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파쇄기와 분쇄기 등 기계설비 교체비용 15억 원과 지난 2014년 준공 당시 시공사가 나주시에 인도하지 않은 소모품과 예비품 상당금액 6억 원을 포함해 총 21억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나주시와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50톤가량으로 전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시공사가 제시한 성능보 증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있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실시공 논란 해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신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가저

광양시는 27일 중마동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읍·면·동 신임 이·통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신임 이·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 교육기관인 이엔티노베이션(주) 김광석 강사의 ‘이·통장의 역할과 자세’와 ‘우리 마을을 위한 주민과의 약

속’이라는 내용으로 주민과의 소통 방법 및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해 나갈 마을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강조했다.

또한, 김문경 강사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명품 마을 만들기’ 강연에서는 이·통장들의 리더십을 웃음과 소통으로 전달해 참석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이·통장들은 우리 마을을 위한 주민과의 약속으로 실천하기 쉬운 기초질서부터 봉사나 나눔, 청결을 일컫는 홍보사절단으로 활동하기로 뜻을 모으고 술선수범과 재를 신장해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지방분권개헌전담회의’ 순천만국가정원서 출범

전남도민 300여명, 내년 지방선거 시기 지방분권 개헌 결의 다져



순천시에서는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전담회의’ 출범식 및 공감콘서트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시기 지방분권 개헌의 결의를 다

졌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지만 정치권의 반응이 시원찮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모범도시 순천에서의 개헌 결의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순천시는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로 전국의 벤치마킹 도시로 각광 받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도입 초반기부터 주민자치대학 등을 통한 주민학습과 훈련에 집중해 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순천시 주민자치위원 등 전남 지역 각계각층이 결의를 모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헌법은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기 쉬운데, 도민 공감콘서트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개헌의 방향을 주민들과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든 오늘 행사가 매우 뜻깊다”며 “지역에서도 꾸준히 지방분권 개헌논의를 이어갈 것”을 부탁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 국화향연’ 7만 3천명 방문 ‘복세통’

‘화순 국화향연’이 27일 개막한 이래 이틀간 7만 3천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화순을 전남공원을 찾는 등 이번 축제의 성공을 예고했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첫 주말인 28일엔 53,145명이 방문, 축제기간 단일 방문객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국화향연 마지막 날인 11월 6일 최다 방문객 3만 5천여 명 보다 1만 8천여명이 많다.

방문객들은 형형색색의 국화와 여새,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이 각종 조형물과 어우러진 힐링정원을 걸으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국화향연은 타 국화축제와는 달리 남산공원의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한 화순민의 독특한 경관이 일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답하면서도 오밀조밀한 정원의 멋을 풍기면서 방문객들이 축제장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데다 국화동산에 수개월 전부터 국화를 직접 재배해 생동감과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한 것이 화순 국화축제의 매력이다.

올해 군 대표축제로 격상하면서 축제장 규모도 5ha로 확대하고 국화동산을 50만주 국화 등으로 단정해 대표 축제로서 손색이 없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또한 성안 벽화마을, 고인돌 전통시장과 연계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새롭게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화순=박순철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